

# 20세기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 역사분야를 중심으로 -

## An Analysis on the Trend of the Research Product of Korea and Japan about Each Other in 20th Century

- Mainly on the Study of History -

송 정 숙(Jung-Sook Song)\*\*

### 〈 목 차 〉

- |                              |                                     |
|------------------------------|-------------------------------------|
| 1. 서론                        | 3.3 연구자 분석                          |
| 2. 한국이 일본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의 분석 | 4. 한일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의 비교분석 |
| 2.1 발행연도 분석                  | 4.1 발행연도의 비교분석                      |
| 2.2 시대 분석                    | 4.2 시대의 비교분석                        |
| 2.3 연구자 분석                   | 4.3 연구자의 비교분석                       |
| 3. 일본이 한국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의 분석 | 5. 결론                               |
| 3.1 발행연도 분석                  |                                     |
| 3.2 시대 분석                    |                                     |

### 초 록

이 연구는 20세기, 즉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발행한 단행본을 대상으로 발행연도·시대·연구자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생산현황과 규모, 역사, 격차 등을 밝히고 있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단행본이 한국에서는 1945년까지 1종도 없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1875년에 단행본이 발행되어서 1900년대에 이미 연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 1946년 이후에는 21세기에 가까울수록 상대국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규모가 한일 양국 모두 커지고 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연구 출발의 시차에 따른 격차는 20세기 말에도 극복되지 못하고, 지식정보의 생산량이나, 연구주체의 다양성, 연구자의 규모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는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의 1/3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한국과 일본, 한일관계, 역사연구, 20세기, 연구성과의 비교, 지식정보

###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research product of Korea and Japan about each other in 20th century. The author analyzed the published year, main period, and author of the research product of history. So she explored the present state, size, history, and gap of the research produc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tudy about Japan history in Korea began after 1945. However, the study about Korean history in Japan began after 1875. So the study about Japan history in Korea is falling behind Japan for 70 years. As a result, research including the amount of research, the number of researchers, the diversity of the minor subject, is 1/3 of that conducted by Japanese Scholars.

Key Words : Korea & Japan, the study of history, research product, 20th century

\* 이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KRF-98-005C00479)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 접수일 : 2002. 5. 16 · 최초심사일 : 2002. 6. 7 · 최종심사일 : 2002. 6. 12

## 1. 서론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국은 크게 또는 작게 일본으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았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역사교과서 문제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등을 통해 일본에서는 아직도 2차대전 당시의 제국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대한 식민지를 경영하였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일본의 이웃인 한국은 20세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1세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녕 일본을 아는가? 일본을 안다면 얼마나 알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해 본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세기, 즉 최근 100년 동안을 이성적·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국을 언제부터, 누가, 왜, 무엇을 연구했는가? 한국에서 물러난 지금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엇을, 왜, 누가 탐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반면에 한국은 일본에 대해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일본에 대한 지식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생산한 지식 정보에 있어서 격차는 없는지,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생산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정보자원 가운데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단행본)를 수집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sup>1)</sup> 이 논문에서는 이 서지데이터베이스 가운데에서 역사분야의 자료, 즉 한국에서 일본역사에 대해 생산한 단행본 490종과 일본에서 한국역사에 대해 생산한 단행본 1,918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분석 대상인 표본의 규모가 크므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양적·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한일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자원의 대체적인 특징이나 양상, 경향들을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표본을 대상으로 발행연도·시대·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sup>2)</sup>

1) 이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범위는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자원, 즉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와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행본으로 제한하였다. 번역서와 편역서, 수필이나 斷想류는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계속 보완하여 망라적으로 수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도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자원의 대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2)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와 책자형 목록을 이용하여 관련 서지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방문조사와 관련 연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용한 서지데이터베이스와 목록의 종류, 방문조사 기관과 방문 일자 등은 [최정태 외 4인, 「한·일관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분석」, 1차년도(1998년 12월~1999년 11월) 연구과제 중간보고서, 2차년도(1999년 12월~2000년 11월) 연구과제 중간보고서(부산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2000)]를 참조하시오.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자원의 발행연도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전체적인 규모와 연도에 따른 추이를 파악하고,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자원에서 다루어진 시대와 이 가운데 한일간의 문제를 중심테마로 하는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시대별 핵심주제와 상대국의 역사문제에 대한 일반사와 한일(일한)관계사의 비중을 파악하며, 지식정보자원을 생산한 연구자와 단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자의 규모와 주요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자원의 발행연도·시대·연구자별로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자원의 전체규모와 연구의 역사, 현황 등에 대한 격차가 밝혀질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역사 연구와 비교할 때 한국의 일본역사 연구의 위상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일본의 역사에 대한 지식정보 생산에 있어서 21세기에 대한 방향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면서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의 생산과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이다.

## 2. 한국이 일본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의 분석

### 2.1 발행연도 분석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역사에 대한 단행본 490종을 대상으로 발행연도별로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45년까지는 일본역사에 대한 단행본이 1종도 없고, 1946~1950년에는 5종(1%)이, 1951~1960년에는 9종(1.8%)이, 1961~1970년에는 19종(3.9%)이, 1971~1980년에는 56종(11.4%)이, 1981~1990년에는 167종(34.1%)이, 1991~2000년에는 233종(47.6%)이 발행되었다. 1945년까지는 일본역사에 대해 발행된 단행본이 전혀 없다가 1946년을 출발점으로 서서히 늘어나서 1951년부터 1970년까지는 10년마다 거의 2배씩, 1971년부터 1990년까지는 10년마다 거의 3배씩 지식정보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91~2000년에는 233종(47.6%)이 발행되어 20세기 100년간 연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연구가 최근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한국에서 일본 역사연구는 21세기에 가까울수록 점점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3권 제 2호)

한국에서 일본역사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후인 1946년부터이고,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의 한일협정 이후이며,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1985년 이후이다. 1982년에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침략행위를 ‘진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된 이후 한국에서 일본역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된 영향으로 파악된다.<sup>3)</sup> 이처럼 한국에서 일본 역사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은 한일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표 1>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 : 발행연도 분석

| 발행연도      | 일본사       |     |      |      |
|-----------|-----------|-----|------|------|
|           | 발행종수      |     | %    |      |
| 1901~1910 |           |     |      |      |
| 1911~1920 |           |     |      |      |
| 1921~1930 |           |     |      |      |
| 1931~1940 |           |     |      |      |
| 1941~1950 | 1941~1945 | 5   |      | 1    |
|           | 1946~1950 |     | 5    | 1    |
| 1951~1960 | 9         |     | 1.8  |      |
| 1961~1970 | 1961~1965 | 19  | 8    | 1.7  |
|           | 1966~1970 |     | 11   | 2.2  |
| 1971~1980 | 56        |     | 11.4 |      |
| 1981~1990 | 1981~1985 | 167 | 54   | 11   |
|           | 1986~1990 |     | 113  | 23.1 |
| 1991~2000 | 233       |     | 47.6 |      |
| 연도미상      | 1         |     | 0.2  |      |
| 합계        | 490(종)    |     | 100  |      |

1901년부터 2000년까지의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결과를 한일 양국의 정치적 관계와 관련 지우면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01년~1945년으로서 연구의 ‘암흑기’이고, 제2기는 1946년~1965년으로서 연구의 ‘태동기’이며, 제3기는 1966년~1985년으로서 연구의 ‘성장기’이고, 제4기는 1986년~2000년으로서 연구의 ‘발전기’라 할 수 있다.

제1기인 1901~1945년은 일본역사에 대한 단행본이 1종도 발행되지 않은 ‘암흑기’이다.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뿌리는 통신사의 기행문 내지 견문록이 주류를 이루고, 또한 임진왜란때 잡혀간 포로들의 기록이 전할 뿐이다.<sup>4)</sup> 이외에 일본을 깊이 연구한 문헌은 발견되지 않는다.

3)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일본역사에 대한 단행본의 발행현황을 보면, 1981년(10종), 1982년(18종), 1983년(6종), 1984년(10종), 1985년(13종), 1986년(25종), 1987년(28종), 1988년(13종), 1989년(19종), 1990년(30종)으로서 1986년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을 倭라 하여 미개한 나라이므로 배울 것이 없다고 하여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한말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에 관심을 가진 젊은 정치인(학자)들이 있었으나, 1901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전까지 일본의 역사에 대한 단행본을 발행할 정도로 연구가 축적되지는 않았다고 파악된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식민지기에는 한국인이 한국의 역사를 연구할 기관도, 또 연구할 자유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본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제1기에는 일본역사에 대한 지식정보가 생산되지 않았다.

제2기인 1946~1965년은 해방이후 일제침략에 대한 설분으로 일본역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태동기'로서 22종의 단행본이 발행되었다. 해방이 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일본사 연구가 가능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의 극단적 반일정책의 여파로,<sup>5)</sup> 일본에 대한 연구 자체가 백안시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일본역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 침략을 폭로하는 연구와 2차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재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sup>6)</sup>

이 시기의 역사학계를 보면, 1952년 3월 부산에서 창립된 歷史學會에 의해 한국사와 더불어 동·서양사도 역사학의 한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동양사가 본격적으로 역사학의 한 영역으로 등장하였고, 1965년 11월 東洋史學會가 창립되었으나, 이 때의 동양사는 주로 중국사를 지칭하였고, 실질적으로 일본사는 이 범위 외에 존재하였다.<sup>7)</sup> 1962년 한일회담<sup>8)</sup>으로 인해 일

4) 한국에서 초기의 일본연구는 조사분석이 주로 된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기행문과 수기형식이 거의 전부였지만 그것도 임진왜란 이후에야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의 연구가 일본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신사 등 사절과 왜구나 왜군에게 붙잡혀간 被擄人, 그리고 해난을 당했던 표류인들이 주로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 말에는 정몽주가 1372년에 奉使臣으로 일본에 갔다가 남긴 12首의 詩가 있다. 조선이 창건된 1392년부터 사명대사가 探報使로 다녀온 1604년까지 212년 간에 70회에 걸친 사절의 파견에도 불구하고 불과 5종의 사행록을 남겼을 뿐이다. 그러나 1604년부터 마지막 통신사가 파견되었던 1811년까지 204년 간에는 12회 사절이 파견되어 총 28종의 使行錄이 남아있다. 그밖에도 被擄人들의 생생한 수기가 있다. 李元洪, “日本研究의 現況과 課題 上”, 《民族知性》 제 17권(1993. 7), p. 200.

5) 해방 후 한일관계가 너무 빨리 正常化되어 交流協力이 너무 빈번하면 한국은 일본의 經濟的·文化的 植民地가 되고 政治的으로도 從屬되어 버릴 우려가 없지 않다. 李承晩도 이것을 염려하여 해방후 적어도 20년 정도는 긴장·대결의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韓昇助, “韓日會談과 朴正熙 : 긍정적 평가”, (<http://www.wiseric.org/한일관계관련글/한일회담과%20박정희%20-%20%20긍정적%20평가.htm>), 2002. 4. 4 접속.

6)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2기에는 이기범의 『한일합방사』(1946), 김창현의 『일본의 극동침략 비사』(1947, 1949), 박치수의 『일본극동침략폭로기』(1950), 김해동의 『조선총독부기구해설』 등과 2차대전에서의 패배 후의 재건 등에 대한 김철우의 『일본전범재판기』(1947), 이정운의 『패전국의 호운 : 패전 일본의 호운』(1961), 『일본현대사화』(1961) 등 20년간 22종이 발행되었다.

7) 박수철, “한국의 일본사 연구동향 :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 홈페이지, ([http://sias.snu.ac.kr/japan/new/korean/c\\_korea/c-99his.htm](http://sias.snu.ac.kr/japan/new/korean/c_korea/c-99his.htm)), pp.1~2. 2002. 4. 2. 접속.

8) 한일회담은 195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62년 10월 김종필이 太平 일본 외상과 만나 請求權 문제에 합의를 보았던 것이 주효하여 회담은 진척되기 시작하였으며 1964년에 이르러 여러 안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일협정이 체결되려 하자 국내의 야당, 언론, 학생들의 반대로 인해 1965년에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역사에 대한 개설서인 「일본사」(1964)가 전해종과 민두기에 의해 발행되었다. 이 책은 일본 역사에 대한 관심을 한글세대에 확산하고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현종의 「조선전기 대일교섭사 연구」(1964)로서 한일관계사의 재조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된 것을 들 수 있다. 1965년의 한일협정에 의한 한일 국교의 재개로 인해 일본사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sup>9)</sup>

제3기인 1966~1985년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고되어, 일본에 대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증대하는 ‘성장기’로서 제2기의 6배에 가까운 121종의 단행본이 발행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제2기 말에 이현종의 「조선전기 대일교섭사 연구」(1964)로 시작된 한일관계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가 조선시대와 고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sup>10)</sup> 일본사에 대한 개설서도 민두기의 「일본과 역사」(1976), 박중수·한우룡의 「일본사개설」(1982) 등으로 다양해지고, 근현대를 중심으로 시대사에 대한 단행본이 발행되어 일본역사에 대한 연구가 세분화·구체화 되었다.<sup>11)</sup> 다음으로는 동양사 또는 동아시아사에서 일본사의 비중이 늘어났으며,<sup>12)</sup>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통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지식정보들이 생산되었다.<sup>13)</sup>

제4기인 1986~2000년은 일본 역사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발전기’로서 제3기의 3배에 가까운 346종의 단행본이 발행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민족의 저항을 조명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와<sup>14)</sup> 일본의 한국침략을 합리화하는 이론, 즉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는 한국을 근대화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하는 이론<sup>15)</sup>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연구

9) 이원순, “한국의 일본역사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제30집(1993).

10) 이 시기에 발행된 한일관계사에 관한 단행본으로는 김의환의 「조선대일교섭사연구」(1966), 김병하의 「조선전기 대일무역연구」(1969), 조항래의 「개항기 대일관계연구」(1973), 홍형애의 「한일고대문화교섭사연구」(1974), 김달수의 「고대일한관계사입문」(1975), 백중기의 「근대한일교섭사연구」(1977), 이종민의 「삼국시대 대일관계사」(1980), 최경락·조희완의 「한일관계론」(1985) 등이 대표적이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한일관계자료집」(1977)도 발행되었다.

11) 상고에 대해서는 문정창의 「日本上古史」(1970), 근대에 대해서는 한배호의 「일본근대화연구」(1973)와 「일본근대사연구」(1979), 강동진의 「일본근대사」(1985), 현대에 대해서는 차기벽·박충석의 「일본현대사의 구조」(1980), 김진의 「일본학생운동사」(1986) 등이 그 예이다.

12) 고병익의 「동아시아의 전통」(1976), 김용덕의 「동양사강의요강」(1981), 김경창의 「동양외교사」(1982) 등이 그 보기이다.

13) 강동진의 「일제의 한국침략사」(1980), 임중국의 「일본침략과 친일파」(1982), 황하현의 「일제의 대한식민지 지배구조의 형성과정」(1982), 문정창의 「(軍國日本)朝鮮強占三十六年史」(1967) 등이 그 예이다.

14) 「일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 : 1920年代 團體의 活動을 中心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연수원 편. 1998 ; 「일제하 광주민족학생민족운동사」(한정일, 1981) ; 「일제하 한국학생독립운동사」(김성식, 1977) ; 「독립운동사의 제문제」(김태준, 1991) ; 「한국독립운동사연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1997).

15) 1980년대 들어 한국과 대만이 신흥공업지역이라고 호칭될 만큼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또 독재에서 민주화로 정치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변화의 前史로서 식민지시대를 파악하려는 새로운 관점이 일본에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식민지지배에 의해 아시아 사회가 발전했는가 아닌가 혹은 식민지지배가 전후 신흥공업지역의 형성과 연속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橋谷弘, “일본에서 한국 근대사연구의 새로운 조류 : 최근의 일본·아시아 關係史의 진전과 관련하여”, 《大東文化研究(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제32집(1997. 12), p. 485.

가 진행되었다.<sup>16)</sup>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일본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sup>17)</sup>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 문헌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집이 발간되었으며, 한일교류기금에서도 일본역사관련 단행본을 발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일본역사 자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서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깊이 있는 주제의 지식정보가 생산되었다.<sup>18)</sup> 한일간의 문제를 중심테마로 하는 일본역사에 관한 연구인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도 시대별로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들어 일본 역사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연구인력의 급속한 확대, 즉 1981~1985년에 22명에 불과했던 일본학 관련 박사학위자가 1986~1990년에는 49명으로 급증하였고, 일본연구자가 1991~1995년에는 90명으로 다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느 학문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았음을 말해주는 것은 전문학회와 전문학술지의 발행인데,<sup>19)</sup> 1990년대에는 일본역사 관련 전문학회인 한일관계사연구회(1992), 일본역사연구회(1994) 등이 잇따라 창립되었고, 「한일관계사연구」와 「일본역사연구」 등 전문학술지들도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일본학회도 「일본사상총서」 10권을 1993년에 완간한 데 이어,<sup>20)</sup> 전 12권으로 계획된 「일본연구총서」를 2001년 9월 현재 6권까지 발행했다. 이처럼 활발한 학술활동의 결과 20세기 100년 동안에 발행된 단행본 490종의 70.6%에 달하는 지식정보가 이 시기에 생산되었다. 이는 한국에서의 일본역사연구가 급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2 시대 분석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역사에 대한 단행본 490종을 주로 다루어진 시대에 따라 분석하면<sup>21)</sup> <표 2>의 '일본사'와 같다. 일본역사에서 근대에 대한 단행본이 200종(40.8%)으로 가장 많고,

16) 한국사학회,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역사연구회, 1996. ; 신용하, 『일제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1998.

17) 『日本の教科書歪曲是非에 붙이는 旁註：獨逸 現代史에 關한 論議를 中心으로』(崔禎鎬, 1987), 『역사교과서 서술의 제문제, 1-6』(한일학술회의, 1989), 『일본에 있어서의 '교과서 문제'와 식민지 지배의 반성』(한일문화교류기금, 1989), 『조선통신사'인식에 대한 재검토 : 한일 역사교과서 기술』(황창윤, 1991), 『일제의 교과서 정책에 관한 연구』(한기언, 이계학, 1993), 『한국에서 본 일본의 역사교육』(이원순, 1994),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역사교과서연구회, 2000).

18) 『일본의 봉건제』(나행주, 1990), 『일본경제의 근대화』(안병직·정영일, 1990), 『일본고대사연구비판』(최재석, 1990), 『일본국가독점자본주의』(宋霖, 1990) 등을 들 수 있다.

19) 박수철, 앞글, p. 1.

20) "일본 연구 아직도 멀었다", 《한겨레 21》 제355호(2001. 4. 17).

21) 日本歴史의 시대구분은 상고는 4세기 초의 야마토[大和]정권 이전까지, 고대는 4세기 초의 야마토[大和]정권 이후, 중세는 12세기 말 카마쿠라[鎌倉]막부의 성립 이후, 근세는 17세기 초 에도[江戸]막부의 성립 이후, 근대는 1868년의 明治時代 이후, 현대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이후로 하였다. 김문길 편저, 『일본역사와 문화』. 서울: 형설출판사, 1998. 참조.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3권 제 2호)

다음이 고대로서 110종(22.4%)이며, 현대가 48종(9.8%)이고, 근세가 13종(2.7%)이며, 중세가 9종(1.8%)이고, 상고가 8종(1.6%)이다.

<표 2>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 : 시대 분석

| 시대 | 일본사  |      | 한일관계사*               |     | 비고     |                            |
|----|------|------|----------------------|-----|--------|----------------------------|
|    | 발행종수 | %    | 발행종수                 | %   |        |                            |
| 상고 | 8    | 1.6  | 8                    | 2.3 |        |                            |
| 고대 | 110  | 22.4 | 삼국시대<br>통일신라<br>고려전기 | 90  | 26.2   | 고구려1<br>백제14<br>신라7<br>가야4 |
| 중세 | 9    | 1.8  | 고려후기<br>조선전기         | 10  | 2.9    |                            |
| 근세 | 14   | 2.9  | 조선후기                 | 12  | 3.5    |                            |
| 근대 | 201  | 41   | 한말<br>일제시대           | 139 | 40.5   |                            |
| 현대 | 49   | 10   | 현대                   | 25  | 7.3    |                            |
| 총설 | 38   | 7.8  | 25                   | 7.3 | 개설서 포함 |                            |
| 사료 | 18   | 3.7  | 17                   | 5   |        |                            |
| 목록 | 5    | 1    | 5                    | 1.5 | 색인포함   |                            |
| 미상 | 38   | 7.8  | 12                   | 3.5 |        |                            |
| 합계 | 490  |      | 343                  |     |        |                            |

\* '한일관계사'는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역사에 대한 단행본 490종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역사 연구를 말한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가 근대와 고대에 집중되었고, 상고·중세·근세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근대에 대한 연구는 한일합방, 즉 일제의 식민통치를 고발하고 폭로하기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고대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한국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古代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는 任那日本府說<sup>22)</sup> 등 조선지배론을 비판하기 위

22) 일본의 역사서인 『日本書紀』에 '임나일본부'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한 일본 사학계의 고전적인 해석은 임나 즉 가야지역을 야마토 정권이 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하여 지배했다고 한다. 임나가 성립하는 4세기 후반부터 임나(가야제국)가 모두 멸망하는 562년까지 약 200여년간 야마토 정권이 임나지역을 지배했다는 설이 任那日本府說이다. 현재 임나일본부의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가야지역의 독자적인 발전과정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 일본의 지배를 증명할 만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일본서기』 이외에는 이러한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나일본부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제정하고 국가의식이 고양되는 8세기 초의 천황중심적 중앙집권국가가 성립한 시점에서 지배층의 의식의 산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연민수 편저, 『일본역사』. 서울 : 도서출판 보고사, 1998. pp. 32-33.



해서라고 파악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아직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는 일본의 모든 시대를 균형 있게 조명할 만큼의 여유도 연구역량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파악된다.

시대분석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표 2>의 ‘한일관계사’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역사에 대한 단행본 490종 가운데 70%인 343종이 한일관계사,<sup>23)</sup> 즉 한국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테마로 하는 일본역사 연구이고, 일본역사 자체를 분석한 일반사에 대한 연구는 147종으로서 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역사 연구가 일본의 한국침략을 드러내고, 식민사관 등 일본의 한국사 왜곡을 비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에서 일본사 자체의 연구로 연구가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한국과 관련된 제한된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본격적인 일본역사에 대해서 축적된 지식정보가 많지 않음은 일본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객관적인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로써 한국에서 일본역사 연구는 주제가 다양화·세분화하지 못했으며, 아직 한국에서의 일본역사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도 역시 근대·고대·현대·근세·중세·상고의 순이다.

## 2.3 연구자 분석

190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에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 1종 이상의 단행본을 발행한 저자는 281명의 개인저자와 64개처의 단체저자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자들을 발행종수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개인저자 282명 가운데 일본역사에 대한 단행본을 가장 많이 발행한 연구자는 최재석으로 7종을 발행했다. 다음으로 6종을 발행한 연구자는 강동진, 임종국의 2명이며, 5종을 발행한 연구자는 고병익, 김용덕, 한상일의 3명이고, 4종을 발행한 연구자는 김달수, 김용운, 노성환, 문정창, 손승철, 차기벽, 한배호, 홍형애의 8명이다. 3종을 발행한 연구자는 김운태, 김은숙 등 11명이고, 2종을 발행한 연구자는 김문길, 하우봉 등 32명이며, 1종을 발행한 연구자는 224명이다. 이처럼 저서를 1종 발행한 연구자가 전체의 79.7%를 차지함은 한국에서 일본역사 연구의 연륜은 오래되지 않지만 저변 인구는 많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아

23) 書名에 한일관계가 명기된 단행본은 이현종의 『조선전기 대일교섭사 연구』(1964), 김의환의 『(조선근대) 대일관계사 연구』(1974), 손승철의 『근세한일관계사』(1987), 손승철의 『근세한일관계사』(1987), 한국인문과학원 편집위원회의 『조선시대 한일관계』(1989), 한국사학회의 『조선후기통신사와 한일교류사료집: 대마도종가자료』(1991), 고병익의 『일본의 현대화와 한일관계』(1992),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의 『한일관계의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1992), 손승철의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1994), 이면우의 『한일관계의 재조명: 쟁점과 과제』(1995), 손승철의 『근세조선의 한일관계연구』(1999), 민족문화추진회의 『조선시대 한일관계 재조명』(1999), 손승철의 『근세조선의 한일관계연구』(1999), 강덕상 외의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1999), 한일관계사학회의 『韓日關係史의 樣相』(2000) 등이 있다.

올러 일본역사 연구에 대한 성장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고병익(5), 민두기(2), 전해종(2)처럼 동양사학자들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강동진(6)과 김달수(4), 이진희(2) 등은 일본에서 활동중인 재일동포 연구자이다.

<표 3>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 : 연구자 분석<sup>24)</sup>

|          | 발행종수     | 저자수    | 저자명  | 비고      |
|----------|----------|--------|--|---------|
| 개인<br>저자 | 7        | 1      | 최재석  |         |
|          | 6        | 2      | 강동진, 임종국   |         |
|          | 5        | 3      | 고병익, 김용덕, 한상일  |         |
|          | 4        | 8      | 김달수, 김용운, 노성환, 문정창, 손승철, 차기벽, 한배호, 홍형애   |         |
|          | 3        | 11     | 김운태, 김은숙, 김의환, 김정주, 선일구, 손대준, 이기동, 이현희, 정효운, 조용만, 조항래  |         |
|          | 2        | 32     | 김기웅, 김문길, 김문식, 김병하, 김은택, 김장권, 김정학, 김창현, 김태준, 민두기, 손정목, 신용하, 안동준, 연민수, 윤명철, 윤상근, 이병선, 이정운, 이종기, 이진희, 이현종, 이홍직, 전해종, 정광호, 신덕규, 최경락, 최성규, 하우봉, 한석희, 한태호, 홍윤기, 황인영 |         |
|          | 1        | 224    | 강길운 외 223명   |         |
|          | 소계       | 281(명) |  |         |
|          | 단체<br>저자 | 16     | 1  | 국사편찬위원회 |
| 7        |          |        |  |         |
| 6        |          | 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 5        |          | 1      | 한일문화교류기금   |         |
| 4        |          |        |  |         |
| 3        |          | 5      | 예지가 편집부,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학문헌연구소, 한일관계사학회   |         |
| 2        |          | 7      | 동양사학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신라문화선양회, 역사학회, 외무성, 일해연구소, 한국출판사   |         |
| 1        |          | 49     | 가람기획편집부 외 48개처   |         |
| 소계       |          | 64     |  |         |
| 합계       |          | 345    |  |         |

24) 발행종수를 파악할 때, 동일저자의 출판물이 내용의 증감없이 출판사와 출판년을 달리하여 출판될 때에 동일본으로 간주하여 1종으로 처리하였다.

개인저자 가운데 가장 많은 단행본을 발행한 최재석은 일본 고대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매우 구체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sup>25)</sup> 6종의 단행본을 발행한 강동진은 일제의 한국침략 등 일본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sup>26)</sup>, 「친일문학론」으로 유명한 임종국은 역사분야에서는 근세 일본의 한국침략행위와 친일파의 행적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sup>27)</sup> 동양사학자인 고병익은 ‘동아시아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주제 하에서 일본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며<sup>28)</sup>, 반면에 일본사 전공자인 김용덕은 일본 근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sup>29)</sup> 한상일은 일본의 근현대사, 특히 제국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있다.<sup>30)</sup>

동양사학자인 전해중·민두기의 「일본사」(1964)와 민두기의 「일본의 역사」(1976)는 일본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설서로서 대중의 일본사에 대한 지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으며, 학계와 일반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일본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병익은 한·중·일의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일본을 소개함으로써 일본을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할 수 있는 시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모두 시대사로는 심화되지는 못했다.

단체저자 가운데 가장 많은 단행본을 발행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등 한일관계에 대한 단행본과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과 대마도증가문서를 중심으로 자료집을 출판하고 있다.<sup>31)</sup>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 「일본교과서 한국관계 왜곡 내용검토」(1982), 「日本歴史教科書の 韓國史歪曲内容의 分析」(1983)을 시작으로 한일관계사를 규명하기 위한 「韓國史論 : 古代韓日關係史」(1987)와 「일제침략하 한국삼십육년사 1-5」 등을 편찬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한일관계와 일본의 식민통치를 중심으로 발행하고 있으며,<sup>32)</sup>

25) 최재석의 저술은 「일본고대사연구비판」(1990), 『백제의 대화왜와 일본화과정』(1990), 「일본고대사의 진실」(1998) 등 7종이 조사되었다.

26) 강동진의 저술은 「일본근대사」(1985), 「한국을 잠악하라 : 통감부의 조선침략사」(1995) 등 6종이 조사되었다.

27) 임종국의 저술은 「일본침략과 친일파」(1982),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2」(1988-1989) 등 6종이 조사되었다.

28) 고병익의 저술은 『동아시아의 전통』(1976),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대사」(1984),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1996) 등 5종이 조사되었다.

29) 김용덕의 저술은 「명치유신의 토지세계개혁」(1989),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1991) 등 5종이 조사되었다.

30) 한상일의 저술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1980), 「일본군국주의의 형성과정」(1981), 「근대사에 있어서의 한일상호인식[2] : 근대일본사」(1994) 등 5종이 조사되었다.

31) 자료집으로는 한말 한국합병의 과정을 이해하는 기본자료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0』(1987-1995)과 조선후기 한일간의 외교문서 書契를 요약 정리한 목록집인 『對馬島宗家文書書契目錄集 1-5』(1991-1994), 조선후기 한일교섭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외교무역관계문서 및 藩政文書를 분류·정리한 목록집인 『對馬島宗家文書 古文書目錄集 1-2』(1995·1996)과 『對馬島宗家文書記錄類目錄集』(1990)<sup>1)</sup> 등을 들 수 있다. 아세이문화사의 한국학 문헌연구소에서도 「구한말일제침략사료총서」(1984-1985)와 『조선총독부관보 총색인』(1990) 등을 발행했다.

32) 『고대한일문화교류』(1990), 『일본제국주의와 한말의 사회변화』(1980),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생활상』(1990), 『일본학생연구 : 역사와 교훈』(1993) 등이다.

1993년에 창립된 한일관계사연구회(1997년 한일관계사학회로 개칭)에서는 「한일관계사 논저목록」(1993)과 「독도와 대마도」(1996) 등을, 한일관계사학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2」(1998), 「한일양국의 상호인식」(1998), 「韓日關係史의 樣相」(2000) 등 한일관계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는 일제하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있으며,<sup>33)</sup> 한일문화교류기금에서는 한일간의 예민한 사안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중심으로 지식정보를 생산하였다.<sup>34)</sup> 국제교과서연구소에서는 「세계화시대의 역사학과 역사교과서 : 종합보고서」(1996)를 발간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1997)을,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sup>35)</sup>

### 3. 일본이 한국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의 분석

#### 3.1 발행연도 분석

1901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간 일본에서 생산된 한국의 역사에 대한 단행본을 발행연도 별로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1901~1910년에 77종(4%), 1911~1920년에 77종(4%), 1921~1930년에 129종(6.7%), 1931~1940년에 221종(11.5%), 1941~1950년에 59종(3%), 1951~1960년 37종(2%), 1961~1970년에 96종(5%), 1971~1980년에 266종(13.8%), 1981~1990년에 365종(19%), 1991~2000년에 576종(30%)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1991~2000년, 1981~1990년, 1971~1980년, 1931~1940년, 1921~1930년의 순으로서 1945년 이전에는 1940년에 가까울수록, 1945년 이후에는 2000년에 가까울수록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의 100년을 전후반기로 나누면, 1951년 이후인 후반기가 1,340종으로서 전반기 563종의 약 2.4배이다. 해방 이전에는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혹은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역사를 연구했는데, 해방 이후의 일본에서 한국역사 연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3) 『일본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1993), 『근대한국민족운동과 대일관계』(1996), 『일제의 조선침략과 민족운동』(1998) 등을 들 수 있다.

34) 이에 관한 것으로 『일본교과서 왜곡시비에 붙이는 방주』(1987), 『日本高校 歴史教科書の 古代 韓國에 대한 記述의 問題點』(1989), 『日本の 教科書에서 본 朝鮮時代』(1989), 『日本에 있어서의 '教科書問題와 植民地 支配의 反省』(1989) 등이 있다.

35) 이에 관한 것으로 『정신대 자료집 I~VII』(1997)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1997) 등이 있다.

&lt;표 4&gt;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 : 발행연도 분석

| 발행연도      | 한국사       |     |      |       |      |
|-----------|-----------|-----|------|-------|------|
|           | 발행종수      |     | %    |       |      |
| 1901~1910 | 77        |     | 4.0  |       |      |
| 1911~1920 | 77        |     | 4.0  |       |      |
| 1921~1930 | 129       |     | 6.7  |       |      |
| 1931~1940 | 221       |     | 11.5 |       |      |
| 1941~1950 | 1941~1945 | 46  | 59   | 2.4   | 3.0  |
|           | 1946~1950 | 13  |      | 0.7   |      |
| 1951~1960 | 37        |     | 2.0  |       |      |
| 1961~1970 | 1961~1965 | 34  | 96   | 1.8   | 5.0  |
|           | 1966~1970 | 62  |      | 3.2   |      |
| 1971~1980 | 266       |     | 13.8 |       |      |
| 1981~1990 | 1981~1985 | 155 | 365  | 8.1   | 19.0 |
|           | 1986~1990 | 210 |      | 11    |      |
| 1991~2000 | 576       |     | 30   |       |      |
| 연도미상      | 15        |     | 0.8  |       |      |
| 합계        | (총)       |     | 100  |       |      |
|           |           |     |      | 786   | 41   |
|           |           |     |      | 15    | 0.8  |
|           |           |     |      | 1,918 | 100  |

일본에서 한국역사에 대한 연구성과도 한일 양국의 정치·사회적 관계와 관련지우면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01년부터 1945년까지로서 연구의 '활성화기', 제2기는 1946년부터 1965년까지로서 연구의 '침체기', 제3기는 1966년부터 1985년까지로서 연구의 '부흥기', 제4기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로서 연구의 '발전기'라 할 수 있다.

제1기인 1900년~1945년은 明治政府와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지원 아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던 '활성화기'이다.<sup>36)</sup> 일본에서의 한국 역사에 대한 단행본의 생산량이 1901~1910년과 1911년~1920년이 동일함은 1900년 이전에 이미 한국역사에 대한 연구의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1900년 이전에 한국 역사에 관한 개설

36) 제1기를 1910년의 한일합방을 중심으로 2기로 나눌 수 있으나, 1901년~1910년과 1911~1920년이 단행본 생산량에 차이가 없으므로 1901년부터 1945년까지를 제1기로 보았다.

서인 「朝鮮史略」(宮原龍吉, 1875)와 「朝鮮史」(林泰輔, 1892)가 발행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이렇게 일찍 한국사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868년 明治維新 이후 정책론으로 발전한 征韓論의 영향으로 파악된다.<sup>37)</sup> 한국역사에 대한 연구가 1901~1910년과 1911~1920년이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20년대부터 증가하여 1930년대 절정을 이루다가 1940년대에 갑자기 줄어들었다. 1920년대부터 한국역사 연구가 늘어남은 1919년의 3·1 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정책이 바뀌면서 조선총독부는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1938년까지 「朝鮮史」<sup>38)</sup>, 「朝鮮史料叢刊」, 「朝鮮史料集眞」을 발행하는 등 정치적 목적, 즉 황국신민화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이며, 1941년 이후에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여 전시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제1기의 첫번째 특징으로는 1901년부터 임태보의 「朝鮮史 3권」(1901)을 시작으로 한국역사에 대한 개설서 내지 통사가 1945년까지 꾸준히 발간되었으며<sup>39)</sup>, 신라사에서 조선사까지 시대사도 고르게 발행된 점을 들 수 있다.<sup>40)</sup>

제1기의 두번째 특징으로는 일본은 한국의 사회전반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朝鮮事情」류를 해마다 발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1876년에 「朝鮮事情 原名 高麗史略」(小林清親 畫), 1894년에 「(朝鮮事情)鷄の陽」이 발행되었다. 이는 메이지[明治]정부가 근대적 국

37) 당시 일본에서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국교제안이 거부되자 “조선은 무례하므로 일본이 무력의 위엄을 보여주어야 될 나라요, 不平武士群을 이주시켜야만 될 나라이며...”, “조선은 應神天皇 三韓征伐 이래 우리의 복속국이다.”라는 등의 한국에 대한 우월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明治 초기에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해지자 일본지도자들은 征韓論의 구실을 찾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1878년에는 조선을 “동양에서 가장, 그리고 제일 완고한 나라”라고 보았다. 明治中期(1890년대)에는 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은 훗날 日韓合邦論으로 발전했으며, 같은 시대의 福澤諭吉의 脫亞論의 朝鮮觀 역시 일본은 동양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근대적 물질문명을 서양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세한 문화를 가진 일본이 한국의 식민화를 수행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사회조류는 1886년 《時事新報》에 “조선인민을 위하여 其國의 멸망을 축하한다”라는 광대에 이르렀다. 한태호, “日本人的 對韓觀”, 《일본연구(명지대학교)》 제1집(1990), pp. 163-164.

38) 「朝鮮史」 편찬사업은 조선 민중으로부터 자국의 역사를 연구할 권리를 빼앗고, 조선 민족의 주체적 발전의 역사를 서술하기보다는 사대주의 그리고 중국과 일본보다도 역사와 문화가 뒤떨어져 있다는 점, 일본의 조선침략의 합법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사료의 취사선택, 사료의 왜곡을 자행하면서 황국신민화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박경식, “일제의 황민화정책”, 『한국사 13 :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1)』. 서울 : 한길사, 1994. p. 196.

39) 제1기에 발행된 한국역사에 관한 개설서 내지 통사로는 「朝鮮史」(久保天隨, 1905), 「朝鮮史綱」(西村豊, 1905), 「朝鮮史」(森朴雄, 1911), 「朝鮮四千年史」(靑柳綱太郎, 1917), 「朝鮮史大全」(靑柳綱太郎, 1922), 「朝鮮史講座 1-3」(朝鮮史學會 編, 1923), 「朝鮮史大系 1-5」(朝鮮史學會 발행, 1928), 「朝鮮史」(朝鮮史編修會, 1932), 「朝鮮通史」(林泰輔, 1944) 등을 들 수 있다.

40) 제1기에 발행된 시대사로는 「新羅史」(福田芳之助, 1913), 「新羅史研究」(今西龍, 1933), 「百濟史研究」(今西龍, 1934), 「高麗史 1-2」(國書刊行會, 1908-1909), 「李朝五百年史」(靑柳綱太郎, 1912), 「李朝史大全」(靑柳綱太郎, 1922), 「朝鮮近世史 上下」(林泰輔, 1901), 「朝鮮開化史」(恒屋盛服, 1914), 「近代朝鮮史」(菊池謙讓, 1940) 등을 들 수 있다.

가의 체제를 정비하면서 대외진출의 예봉을 조선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의미한다.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로는 통감부에서 「朝鮮事情要覽」을 편찬하였다. 1910년 8월 '한국합병에 관한 조약을 조인한 후 일본은 '한국'을 '조선'으로 국호를 고치고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고쳤다. 이후로는 조선총독부에서 「朝鮮事情」 또는 「最近朝鮮事情要覽」<sup>41)</sup>을 매년 발행하였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경제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은행 조사부에서 편찬한 「朝鮮事情」(1920)과 「朝鮮事情機密通信」(1924)도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1기의 세번째 특징으로는 '滿鮮史'를 발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조선사를 만주세력의 파급으로 해석하여 대륙사의 일부로 만든 '滿鮮史'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일본은 1894년~1895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조선사의 발전에 독자적인 합법칙성·주체성을 부정하고, 항상 주변 특히 중국에 좌우되어 왔던 역사라고 하는 他律性論을 바탕으로 1904년 黑龍會에서 편찬한 「滿韓新圖」를 시작으로 滿鮮史에 대한 지식정보가 활발하게 생산되었다.<sup>42)</sup>

제1기의 네번째 특징으로는 한국의 고적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910년대에 설치된 총독부 총무국 내의 총독부 박물관의 통괄 아래 고적조사위원회 등에 의해 고문화재의 조사수집 등이 실시되었는데, 조선인은 거의 관여할 수 없었고, 또 조선인 연구자를 육성하지도 않았다.<sup>43)</sup> 한국에 소재하는 古蹟을 조사하여 만든 圖譜인 「朝鮮古蹟圖譜」와 「朝鮮古蹟調查報告」를 편찬한 것을 들 수 있다. 1915년에 朝鮮古蹟圖譜 제1집(낙랑군 및 대방군 시대)을 시작으로 1936년 제16집(도자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상고시대인 낙랑<sup>44)</sup>으로부터 조선시대까지, 궁궐, 성곽, 건축, 도자기, 불상, 회화 등 우리의 문화재를 망라하였다. 「朝鮮古蹟調查報告」는 조선의 고적을 조사한 보고서로서 1918년의 제1집을 시작으로 1937년의 제17집까지 거의 매

41) 한 예로 『大正九年(1920)最近朝鮮事情要覽』을 보면, 범례에 편찬목적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최근 조선에 있어서 시설경영의 일반과 조선인의 생활상태와 기타 조선의 사정을 기술하고, 통계표를 곁들여 개괄적으로 관찰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목차를 보면, 연혁(併合顛末, 병합후의 시설), 풍속관습, 地誌, 교통, 통신, 지방행정, 교육, 재정 및 경제, 농업, 상업, 공업, 무역, 임업, 수산업, 拓植事業, 제사, 종교, 고적 및 유물, 위생, 경찰, 사법의 22장으로 되어있다. 조선총독부, 『大正九年最近朝鮮事情要覽』, 京城[서울]: 조선총독부, 1920.

42) 만선사에 대한 저술로는 『滿鮮大觀』(熊澤壽太, 1917), 『滿鮮叢書 제1-11권』(細井肇 編, 1922), 『北鮮問島史』(永井勝三, 1925), 『朝鮮史·滿洲史』(稻葉岩吉·矢野龍一, 1933), 『朝鮮と滿洲國』(小野久太郎, 1932), 『滿鮮史研究』(池内宏, 1937), 『滿鮮史論叢』(稻葉博士還曆紀念會, 1941) 등을 들 수 있다.

43) 박경식, “일제의 황민화정책”, 『한국사 13 :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1)』. 서울 : 한길사, 1994, p. 196.

44) 낙랑고분의 발굴조사는 일본의 한국지배시기에 중점을 두고 일관되게 행해졌는데, “낙랑연구를 크게 장려했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에도, 총독부의 식민지적 문화정책이 무의식중에 또는 의식적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함축되어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낙랑을 연구한 의도의 근본에는 이것으로 조선문화의 연원·독자성을 부정하고 중국문화에 예속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박경식, 앞글, pp. 197-198.

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31년에 半官半民의 총독부 외곽단체로 조직되었던 朝鮮古蹟研究會는 평양·경주·부여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낙랑·신라·고려문화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1934년에 「[朝鮮]古蹟調査概報」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1기에 이루어진 일본의 한국역사 연구는 대부분 조선민족의 열등성·후진성, 이른바 정체론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혹은 조선 민족의 신화·전설을 왜곡하여 일선동조론이나 神의 시대부터 조선지배, 신공왕후의 신라정벌, 임나일본부 등에 의한 조선지배론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를 합리화하는 데에 급급했다. 또한 조선은 한사군을 비롯한 중국의 속국[식민지]이었고, 事大의 예를 갖추어 조공을 계속했으므로 독립국이었던 시기는 없었고, 문화·사상면에서도 독자성이 없이 모두 중국을 모방한 것이라 주장했다.<sup>45)</sup>

제2기인 1946년~1965년 한일협정까지는 일본에서 한국역사 연구의 '침체기'라 할 수 있다. 1945년 8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하여 항복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일본이 철수한 이후 1965년까지는 한일 양국의 국교가 단절된 시기였으므로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침체된 양상을 띄었다. 이 시기에 생산된 단행본은 84종으로 제1기의 549종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국교단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1기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가 맥을 잇고 있었다.<sup>46)</sup>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이나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에 소속된 학자들이 귀국하여 1951년에 天理大學을 거점으로 조직된 '朝鮮學會'와 1959년에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朝鮮史研究會'가 주축이 되어 「朝鮮學報」와 「朝鮮史研究會論文集(현재 朝鮮史研究)」 등의 학회지를 통해 한국역사 연구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소나 朝鮮近代史研究會, 東洋史研究會, 朝鮮史料編纂會 등의 연구회에서 한국역사에 관한 자료집과 단행본을 발행하였다.<sup>47)</sup> 아울러 이 시기에는 재일한국인(계) 연구자들에 의한 한국역사 연구의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在日朝鮮人關東社會科學者協會와 韓國史料研究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sup>48)</sup>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남한과 국교가 단절된

45) 박경식, 앞글, p. 199.

46) 제2기에 생산된 한국역사에 관한 단행본으로는 旗田巍의 「朝鮮史」(1951), 末松保和의 「新羅史의諸問題」(1954)와 「任那興亡史」(1956), 近藤一의 「朝鮮의治政 太平洋戰下 終末期」(1961)와 「太平洋戰下の朝鮮 1-5」(1962-1963) 등을 들 수 있다.

47) 東京大學出版會에서는 「日本の 軍國主義 1-2」(井上青, 1953), 明治大學 文學部 文學研究所에서는 「日麗交易史の研究」(青山公亮, 1955), 中央日韓協會·友邦協會에서는 「朝鮮の保護及び併合 明治時代における日本の對韓政策」(朝鮮總督府 編, 近藤一 改編改述, 1956), 朝鮮近代史研究會에서는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朝鮮近代史料研究會 編, 1959), 東洋史研究會에서는 「朝鮮史研究」(內藤雋輔, 1961), 朝鮮史料編纂會에서는 「太平洋戰下の朝鮮 1-5」(近藤一, 1963) 등을 발행했다.

48) 제2기에 발행된 재일한국인(계) 연구자의 저술로는 在日朝鮮人關東社會科學者協會에서는 「韓國歷史年表世界對照」(朴慶植, 1955), 韓國史料研究所에서는 「韓來文化の後榮 上下」(金正柱 編, 1962)과 「韓來文化と其の史蹟 東海地方」(李沂東, 1964) 등을 발행했고, 김달수의 「朝鮮; 民族·歷史·文化」(1958) 등을 들 수 있다.



상태이었으므로 북한학자들의 연구업적이 일본학계에 소개되었는데, 朝鮮史研究會에서 번역하여 발행한 金錫亨의 「三韓三國の日本列島内分國について」(1964)가 대표적이다.

제3기인 1966년-1985년은 일본에서 한국역사 연구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다시 국교가 정상화되자 한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제3기의 일본에서 한국역사에 대한 지식정보생산량은 483종으로 1901년~1945년까지의 45년 동안에 생산된 549종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이다. 제1기 가운데 가장 왕성하였던 1931~1940년에 221종이 생산되었는데, 1971~1980년에 266종이 생산되었음은 해방 이전의 연구역량을 완전히 회복하여 연구가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로 한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여 한국이 일본의 주요수출국으로 부상하는 사회·경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여러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한국역사를 강의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한국 역사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학문적 이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한국역사 연구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역사연구의 열기의 배경에는 일본이 패전에서 재건하여 경제대국이 됨으로써 다시 부활하는 군국주의적인 사회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분위기가 1982년의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표출되었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식민지의 공업화가 해방후의 한국이 신흥공업지역으로 급부상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근대화' 논의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다.<sup>49)</sup>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제4기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고 본격화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4기인 1986년-2000년은 일본에서 한국 역사연구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제4기인 15년 동안의 지식정보생산량은 786종으로 제3기인 25년간의 지식정보생산량인 483종의 약 163%,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의 생산량의 약41%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이는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경제성장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한국역사에 대한 연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에 일본 문부성의 대학개혁정책으로 대학에 국제문화학부가 신설되면서 한국학 강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한국학 연구가 확산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sup>50)</sup>

49) 橋谷弘, 앞글, p. 485.

50) 최정태 외 4인, 「한·일관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2차년도(1999년 12월~2000년 11월) 연구과제 중간보고서(부산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8), p. 9

### 3.2 시대 분석

일본에서 생산된 한국의 역사에 대한 단행본 1,918종을 대상으로 단행본에서 주로 취급된 시대를 분석하면 <표 5>의 '한국사'와 같다. 일본이 식민지통치를 하였던 일제시대에 관한 것이 397종(20.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제와 가까운 조선시대에 관한 것으로 283종(14.8%), 그 다음이 상고에 대한 것으로 247종(12.9%)이고, 현대는 155종(8%), 삼국시대는 136종(7.1%), 고려시대에 대한 것은 34종(1.8%)이다.

<표 5>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 : 시대 분석

| 시대        | 한국사   |      | 일한관계사* |      |
|-----------|-------|------|--------|------|
|           | 발행종수  | %    | 발행종수   | %    |
| 상고        | 247   | 12.9 | 125    | 22.1 |
| 삼국시대·통일신라 | 136   | 7.1  | 34     | 6.0  |
| 고려시대      | 34    | 1.8  | 7      | 1.2  |
| 조선시대      | 283   | 14.8 | 134    | 23.7 |
| 일제시대      | 397   | 20.7 | 78     | 13.8 |
| 현대        | 155   | 8.0  | 40     | 7.1  |
| 총설        | 38    | 2.0  | 3      | 0.5  |
| 사료        | 81    | 4.2  | 35     | 6.2  |
| 연표        | 9     | 0.5  |        |      |
| 지방사       | 3     | 0.15 |        |      |
| 미상        | 535   | 27.9 | 110    | 19.4 |
| 합계        | 1,918 | 100  | 566    | 100  |

\* '일한관계사'는 일본에서 발행된 한국역사에 대한 단행본 1,918종 가운데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테마로 하는 한국역사 연구를 말한다.

일제시대와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는 침략통치를 합리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역사와 시정, 연구보고, 강연, 시국상황에 관한 것이 간행의 주류를 이루었고, 아울러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같은 역사적 대사건에 대한 소명자료와 임진왜란을 찬양, 합리화하기 위한 征韓史를 보급하고, 빈곤과 정체를 강조한 기행기 등이 정책 간행의 대상이었다. 1922년에 한국사를 “皇國史化”하기 위한 조선사편수회가 조직되어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전체 1,918종을 보면, 고려시대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고르게 이루어져서 각 시대간 균형을 잡고 있다.

시대분석에서 나타나는 또하나의 특징은 <표 2>의 '일한관계사'에서 보듯이 일본에서 발행된 한국역사에 관한 단행본 1,918종 가운데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테마로 하는 한국역사 연구, 즉 일한관계사 연구가 566종으로 전체의 약 29.5%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한국역사 자체를 분석한 일반사는 1,352종으로서 70.5%에 달한다. 이는 한국사 연구가 매우 심화되어 주제가 세분화·구체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한관계에 관한 지식정보는 조선시대, 상고, 일제시대, 현대, 삼국시대 순으로 많다. 조선시대에 관한 연구는 통신사, 임진왜란, 고적조사 등에 대한 연구가 많고, 일제시대에 관한 연구는 한일합방, 관습조사, 독립운동, 관동대지진 등이 많이 연구되었으며, 상고시대에 관한 연구는 임나일본부, 도래인 등이고, 현대에 관한 연구로는 재일한국인, 남북 분단, 한국전쟁, 독도, 역사교과서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 3.3 연구자 분석

일본에서의 한국역사에 대해 단행본을 1종 이상 발행한 연구자는 804명의 개인저자와 205개체의 단체저자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자들을 발행종수별로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개인저자 804명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단행본을 발간한 연구자는 金達壽(24종)이고, 다음이 朴慶植(20종)이다. 10종 이상 발행한 연구자는 靑柳綱太郎(靑柳南冥)(17종), 井上秀雄(17종), 末松保和(15종), 姜在彦(15종), 市川正明(14종), 辛基秀(14종), 池内宏(13종), 高峻石(12종), 李進熙(11종), 旗田巍(10종)의 10명이다. 다음은 今西龍(9종), 近藤一(8종), 中村榮孝(8종), 琴乘洞(7종), 梶村秀樹(7종), 北原スマ子(7종), 上田正昭(7종), 細井肇(7종), 松田甲(7종)의 순이다. 3종 이상의 단행본을 발행한 개인 연구자는 105명이다. 이 가운데 재일 한국인(계)학자로 박경식(26종), 김달수(24종), 강재연(15종), 신기수(14종), 이진희(11종), 금병동(7종) 등이 대표적이다.

단체저자로는 朝鮮總督府(125종), 朝鮮史編修會(25종), 近現代資料刊行會(25종), 朝鮮史研究會(15종), 韓國歷史研究會(13종), 韓國史料研究所(11종), 日本史料集成編纂會(9종), 福岡地方史研究會(8종) 등이 대표적이다.

단체저자 가운데 조선총독부가 한국 역사에 관한 가장 많은 지식정보를 생산했다. 일제는 식민정책을 펴면서 단순한 금압에 머무르지 않고, 식민사관으로 조선 역사를 재구성했다. 일제는 '日鮮同祖論'이나 강압만으로는 조선민족의 복종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조선인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식민사관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더구나 때마침 박은식이 중국에서 발간한 「韓國痛史」와 「獨

立運動之血史」<sup>51)</sup>가 국내에 반입되자 이에 당황한 조선총독부는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하고 「조선사」 37권을 편찬한 것이 대표적이다.<sup>52)</sup>

<표 6>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 : 연구자 분석<sup>53)</sup>

|          | 발행종수 | 저자수  | 저자명                                   |
|----------|------|--|---------------------------------------|
| 개인<br>저자 | 25   |  |                                       |
|          | 24   | 1  | 金達壽                                   |
|          | 23   |  |                                       |
|          | 22   |  |                                       |
|          | 21   |  |                                       |
|          | 20   | 1  | 朴慶植                                   |
|          | 19   |  |                                       |
|          | 18   |  |                                       |
|          | 17   | 2  | 井上秀雄, 青柳綱太郎(青柳南冥)                     |
|          | 16   |  |                                       |
|          | 15   | 2  | 姜在彦, 末松保和                             |
|          | 14   | 2  | 市川正明, 辛基秀                             |
|          | 13   | 1  | 池内宏                                   |
|          | 12   | 1  | 高峻石                                   |
|          | 11   | 1  | 李進熙                                   |
|          | 10   | 1  | 旗田巍                                   |
|          | 9    | 1  | 今西龍                                   |
|          | 8    | 2  | 近藤一, 中村榮孝                             |
|          | 7    | 6  | 琴秉洞, 梶村秀樹, 北原スマ子, 上田正昭, 細井肇, 松田甲      |
|          | 6    | 7  | 高秉雲, 段熙麟, 司馬遼太郎, 森田芳夫, 小田省吾, 全浩天, 仲尾宏 |
| 5        | 10   | 菊池謙讓, 林太輔, 武田辛男, 三上次男, 三品彰英, 田村洋幸, 中塚明, 統雄一, 片野次雄, 幣原坦 |                                       |
| 4        | 8    | 金一(ほか), 金正柱, 金廷鶴, 稻葉岩吉, 朴鐘鳴, 雨森芳洲, 田保橋潔, 佐伯有清          |                                       |
| 3        | 30   | 姜東鎭 외 29명  |                                       |
| 2        | 85   |  |                                       |
| 1        | 642  |  |                                       |
| 소계       | 804  |  |                                       |

51) 박은식은 근대 이후 일본의 침략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와 『독립운동지혈사』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민족이 이를 읽고 민족정신을 잃지 않게 하자는 뜻을 두었다. 그는 역사에서 그 나라 민족혼이 담겨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김송달, 『바로보는 한국근현대 100년사 1 :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서울 : 거름, 1998, p. 309.

52) 김송달, 앞 책, p. 315.

53)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연구자라 하더라도 일본의 출판사에서 일어로 저서를 발행했다면 일본 역사학계에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 발행종수 | 저자수 | 저자명   |
|----------|------|-----|---|
| 단체<br>저자 | 125  | 1   | 朝鮮總督府   |
|          | 25   | 2   | 近現代資料刊行會, 朝鮮史編修會                              |
|          | 16   |     |   |
|          | 15   | 1   | 朝鮮史研究會  |
|          | 14   |     |   |
|          | 13   | 1   | 韓國歷史研究會                                       |
|          | 12   |     |   |
|          | 11   | 1   | 韓國史料研究所                                       |
|          | 10   |     |   |
|          | 9    | 1   | 日本史料集成編纂會                                     |
|          | 8    | 1   | 福岡地方史研究會,                                     |
|          | 7    |     |   |
|          | 6    | 1   | 吉川弘文館   |
|          | 5    | 1   | 統監府   |
|          | 4    | 3   | 京城帝國大學, 國書刊行會, 朝鮮史學會                          |
|          | 3    | 6   | 東京國立博物館, 朝鮮銀行, 朝日新聞社, 韓國民衆史研究會, 黑龍會, 陸戰史研究普及所 |
|          | 2    | 16  |   |
|          | 1    | 170 |   |
| 소계       | 205  |     |   |

#### 4. 한일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의 비교분석

##### 4.1 발행연도의 비교분석

190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의 역사에 대한 단행본은 490종임에 비해 일본에서 발행된 한국역사에 대한 단행본은 1,918종으로서 지식정보의 생산량이 일본은 한국의 거의 4배이다. 한일양국에서 상대국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제4기, 1986~2000년의 지식정보 생산량을 분석하면 한국은 346종, 일본은 786종으로서 일본이 한국의 약2.3배이다. 한국의 일본역사 연구는 일본에서 한국역사 연구에 비해 지식정보생산량이 1901~2000년의

100년 동안을 분석하면 1/4, 1986~2000년의 최근 15년 동안을 분석하면 1/2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행연도를 통해 연구가 축적된 기간을 살펴보면 한국은 해방이후인 1946년에 비로소 이기범의 「한일합방사」 등 2종의 단행본이 출판되었고, 일본역사에 대한 통사는 1964년에 발행된 「일본사」가 처음이다.<sup>54)</sup> 이에 비해 일본은 1875년에 이미 「(啓蒙)朝鮮史略」이 출판되는 등 19세기 후반 한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01년에 오면 「朝鮮史」와 「朝鮮近代史, 上下」 등 한국역사에 대한 통사와 아울러 시대사가 출판된 한국역사 연구가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일본역사 연구는 1945년 해방이후에 시작되었고, 일본에서 한국역사 연구는 明治政府의 정한론의 영향으로 1875년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출발부터가 70년 뒤진다. 한국의 일본역사 연구는 연륜이 56년이지만 일본의 한국역사 연구는 최소한 125년으로서 일본에서 한국역사 연구기간은 한국에서 일본역사 연구 기간의 약 2.3배이다.<sup>55)</sup>

이처럼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는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에 비해 70년이나 늦게 출발했고, 그 영향으로 지식정보생산량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격차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 4.2 시대의 비교분석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는 근대와 고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외의 시대에 대한 연구는 아주 적다. 이 가운데에서 한국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 테마로 하는 일본역사 연구, 즉 한일관계사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는 일제시대와 조선시대와 상고시대의 순으로 많으며, 고려시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대가 고르게 연구되었으며,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 테마로 하는 한국역사 연구, 즉 일한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일 양국이 모두 근세·근대, 상고와 고대에 대한 지식정보생산량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연구목적은 상이하다. 한국에서의 일본 역사연구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를 규명하고 폭로함과 아울러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임나일본부설 등의 고대사 왜곡을 비판하기 위해 근대사와 고대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의 한국 역사연구는 식민통치와 한국에서의 수탈을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한국의 사회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아울러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하기 위한 고적조사, 그리고 한

54) 1901년 이전에 발행된 자료는 이 연구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망라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다.

55)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이 1901년에서 2000년까지이므로, 2000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일합방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의 고대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일양국의 상대국 역사 연구에 있어서 차이점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본역사 연구는 30%가량이 일본사 자체에 대한 연구이고, 70%가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이다. 반면에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는 한국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70%이고, 일한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30%로서 한국과 일본이 정반대이다.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가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에 비해 절대량이 4배임에 비추어 보면, 상대국에 대한 순수한 역사 연구는 일본이 한국의 9배 이상이나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가 한국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사에 대한 객관화가 충분하지 못한 반면에, 일본에서의 한국사 연구는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에 비해 주제가 다양화·구체화되었으며, 객관적인 시각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3 연구자의 비교분석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본역사에 관한 단행본을 1종 이상 발행한 연구자는 개인저자가 281명이고, 단체저자는 64개처로 전체는 345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한국역사에 관한 단행본을 1종 이상 발행한 연구자는 개인저자는 804명이고, 단체저자는 205개처로 전체는 1,009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개인저자와 단체저자는 한국의 약 3배이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의 100년 동안의 한일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의 양을 비교하면, 일본의 지식정보 생산량은 한국의 약 4배, 연구의 역사는 한국의 2.5배, 지식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자의 규모는 한국의 약 3배이다.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는 70%가 한일관계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의 한국 역사 연구는 70%가 한국 역사 자체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정보 생산에 관한 종합성적은 <한국 : 일본 = 1 : 3>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한일 양국의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역사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생산한 지식정보를 발행연도·시대·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한일양국의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현황과 규모, 역사, 격차 등이 밝혀졌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정보생산에 있어서 공통점은 1946년 이후에는 한일 양국이 모두 21세기에 가까울수록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45년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일본역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이미 한국역사에 대한 연구기반이 조성되어 1900년대에 이미 연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출발의 시차는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에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격차는 지식정보의 생산량이나, 연구주체의 다양성, 연구자의 규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일본역사 연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에서의 한국역사 연구의 1/3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손자병법에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고 했다. 한국이 일본을 이해하는 정도가 일본이 한국을 이해하는 정도의 1/3 수준이니 정치·외교·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연구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떨칠 수 없다. 그런 결과는 한일어업협정 등 당면하고 있는 문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체함>**